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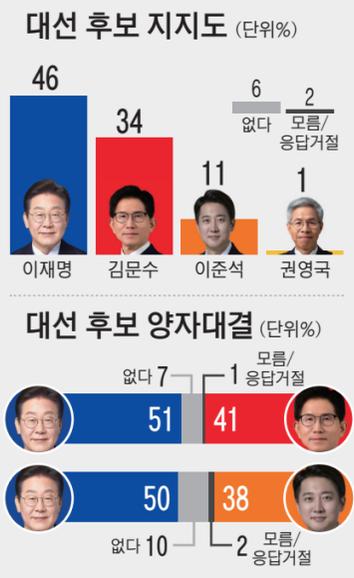
## 이재명, 전국 지지율 46%... 호남서 78% 압도적 지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전남일보 공동

김문수 34%·이준석 11%·권영국 1%  
‘양자 대결’ 이재명 51%·김문수 41%  
‘당선 가능’ 이재명 66%·김문수 21%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에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78%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



영국 후보는 1%,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각각 0%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은 8%로 부동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서울 43%, 인천·경기 49%)과 강원(49%), 대전·세종·충청(45%), 제주(38%) 등 대부분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78%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9%)와 69%p 격차를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53%), 부산·울산·경남(42%) 등 전통 보수 강세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17%), 강원(16%), 서울(14%) 등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 고른 지지세를 보였다.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점했다. 김문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51%대 41%,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50%대 38%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20대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52%로 이재명 후보(36%)를 앞섰으며 세대별 특성이 두드러졌다.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66%로, 김문수(21%), 이준석(2%)을 크게 앞질렀다.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할 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이 88%,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 11%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2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 확충’(20%),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15%), ‘광역교통망 확대’(12%)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33%, 개혁신당 7%, 조국혁신당 3%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우세 구도가 유지되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좁히는 양상을 보인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수 단일화 등 판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우리 마음에 오만과 방심이 싹 트면 국민께서 제일 먼저 눈치채고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통합과 화합이 아닌, 이념·세대·성별·지역 갈등이 난무하는 ‘이재명의 왕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6월3일은 이재명을 향한 국민들의 ‘압도적 응징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2·3면  
대신협공동취재단·정성현 기자

## 고흥에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시험시설 조성

이노스페이스 종합시험장 준공

전라남도도는 22일 고흥군 포두면에서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간 우주산업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이노스페이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다짐했다.

고흥 종합시험장은 총 253억 원을 투입해 3만3348㎡ 부지에 조성된 민간 주도 발사체 시험시설로, 주요 시설로는 25톤급 하이브리드와 3톤급 액체(메탄) 추진

기관 연소시험장, 발사대 기능 시험장, 단조립·단인증 시험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시험장 준공으로 이노스페이스는 향후 상업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험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민간 우주개발 선두주자로서의 도약을 기대된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전남도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맺었으며,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소형 발사체 제작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노스페이스는 상업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세계적 민간 우주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라며 “전남도는 이노스페이스가 ‘K-우주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 YWCA 투표 캠페인** 광주YWCA 회원들이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회화나무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후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구축, 평화·통일, 보건의료, 시민사회 활성화, 성평등,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 등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회원들은 각 후보자들이 6개 부문 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현해 나가는 정책에 투표한다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양배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온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 지구를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